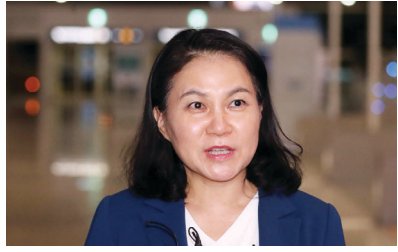


# WTO사무총장 선거전 출마 유명희 “위기 구할 책임자”

### 산업부 관계자 “日 ‘유명희 낙선운동’ 없을 것...네거티브 전례없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전에 뛰어드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16일 WTO 회원국들을 상대로 포부를 밝힌다. 그는 위기의 WTO를 구할 책임자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사무총장 후보자 정견발표를 한다. 정견발표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현

지 기자회견 시간이 이어진다. 지난달 WTO 사무총장 선거에 공식 출마 선언한 유 본부장은 지난 12일 출국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선거에서 현재 WTO 체제가 ‘비상상황’임을 강조하고 현 상황에서 WTO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능력을 갖춘 책임자임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표류하는 배의 선장이 떠난 상황에서 지역 안배나 ‘성별 안배’를 논할 상황이 아니다. 당장 사무총장 자리에서 WTO를 위기에서 구할 능력을 갖춘 후보가 필요하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외교적 경험과 통상 능력, 인적관계를 두루 갖춘 우리 후보가 책임자라는 점을 어필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출마한 상황에서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으로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의 태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유 본부장을 ‘비토’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정부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부터 시작해 WTO에 이르기까지 7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무수히 많았던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깎아내리는 식의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전례가 없었다”면서 “출마도 하지 않은 일본이 한국을 겨냥한 낙선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낙연 “균형발전 핵심 중 핵심은 국회 세종 이전”

### “기업도 지방 이전...이전 거리따라 ‘법인세 면제’ 등 필요”



홍영표(왼쪽부터), 박완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춘희 세종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꼽으며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위가 추진한 ‘국회 세종의사당

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금부터 훨씬 더 노력해야 할 분야가 균형발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은 너무도 많다”라면서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것은 난제에 속한다. 균형발전을 지금부터라도 좀 더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행 과제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거론하며 “중정권 혁신도시를 포함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며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도 이미 정해져 있다. 속도를 내서 추진돼야 한다.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지방 이전도 필요하다”며 “수도권으로부터 얼마나 먼가, 또 지역 여건이 어떤가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해주거나 완화하거나 아주 밀게는 법인세 면제가 지 해 과당성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핵심 중의 핵심은 국회의 사당의 세종 이전일 것”이라며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빨리해야 한다고 보고 저도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했다.

김윤호 기자

# 심상정 “추모 감정에 상처” 사과... “아쉽고 유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류호정, 장혜영 두 의원은 (박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피해 호소인을 향한 2차 가해가 거세지는 것을 우려해서 피해 호소인에 대한 굳건한 연대 의사 밝히는 쪽에 무게 중심을 뒀다”면서 “두 의원의 메시지가 유족분들과 시민의 추모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거부 논란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정의당 소속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조문 거부 의사를 밝힌 후 당원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휩싸여 일부는 탈당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은\_정의당에\_힘을\_실어줄\_때 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탈당 반대 운동도 전개되는 등 어수선한 당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에 심 대표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탈당 움직임에 공개 사과로 ‘조문 거부’ 논란 차단

류호정·장혜영 오늘 의총선 공개발언 없이 침묵

강민진 혁신위 대변인 “심 대표 사과, 아쉽고 유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의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내부 논란을 가라앉히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류호정, 장혜영 두 의원의 피해 호소인을 향한 2차 가해가 거세지는 것을 우려해 굳건한 연대 의사를 밝히는 쪽에 무게 중심을 뒀다”며 “두 의원의 (이같은) 메시지가 유족분들과 시민의 추모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했다.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조문 불가 입장을 밝히자 당 게시판을 “망자에 대한 예의를 먼저 가르치려”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일부 당원은 탈당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탈당하지\_않

이날 논란이 됐던 류, 장 의원은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았다.

다만 심 대표는 “정의당은 애도의 시간 동안 고인의 공적을 반추하며 저를 포함한 전·현직 의원들은 조문하고 명복을 빌었다”며 “동시에 피해 호소인에게 고통이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의 조문 불가 또한 당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엄호한 셈이다.

나아가 심 대표는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난 권력형 성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조문 논란에서 다른 이슈로 전환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심 대표는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2차 피해를 명확히 규정하

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에 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심 대표의 사과가 진보정의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적절했느냐는 당내 비판도 나왔다.

강민진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심 대표의 사과에 대해 “아쉽고 유감스럽다. (류호정·장혜영) 두 의원 입장을 존중한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당사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이 사건을 종결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남은 우리들이 도와야 한다”며 “원래 유일 진보 야당으로서 정의당의 책임도 무겁다”고 강조했다.

한 당 관계자는 조문 거부에 대해 “무조건 여권(민주당 2중대)으로 규정하고 있는 프레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탈당도 있었지만, 여성 당원들도 증가했다”고도 했다.

지난해 조국 사태 때 탈당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분(심 대표)에 대해 가졌던 마지막 신뢰의 한 자락을 내다 버린다”며 “민주당 2중대 하다가 팽 당했을 때 이미 정치적 판단력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보정치에도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태”라며 “젊은이들의 감각을 믿고 그들에게 당의 주도권을 넘기는데 좋을 듯”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당은 수습에 나섰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심 대표의 사과 발언에 대해 “당 대표는 조문 거부 자체에 대해 사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두 의원의 연대 의사 메시지가 유족과 시민들의 추모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사과드린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이어 “조문 거부 자체에 대해 사과한 것이 아닌데도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가고 있다”며 정정을 요청했다.

김윤호 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